

## 담석증 증상과 예방·치료법

## 운동·식이 요법으로 콜레스테롤 줄여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 갑자기 명치(가슴뼈 아래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오른쪽 복부에 이르기까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 여기에 소화불량·황달 등이 동반된다면 담석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담석증은 40~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률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음과 폭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로 21병원 외과 위구복 원장의 도움말로 담석증의 증상 및 종류·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발병률 여성이 남성 2배...오한 증상땐 수술

## 알코올 섭취 줄이고 기생충 약 정기 복용을

◇ 담석증=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각종 원인에 의해 돌처럼 단단하게 응고되면서 형성된 결석을 담석이라고 한다. 흔히 담석증이라 하면 담즙 배출 경로에 형성된 모든 결석을 총괄한다. 우리 몸의 간에서는 매일 맥주병 2병 가량(900ml)의 담즙을 생산한다. 이 담즙은 담도와 담낭을 통해 심이지장으로 분비되는데, 지방 음식 소화·콜레스테롤 대사·독성물질 배출 등의 생리적 기능을 맡고 있다. 신장(콩팥) 및 요도에 결석이 생기는 요로결석과는 다른 질환이다.

◇ 담석증의 종류=담석은 그 구성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분류되고, 색소성 담석은 다시 흑색 색소성 담석과 갈색 색소성 담석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성 담석은 여성과 비만인 경우, 40대 등에 비교적 많이 생긴다.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여성호르몬이 담즙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갈색 담석은 담즙 지류나 담도에 감염과 관계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들은 간디스토마 등 쪽까지 쟁이나 세균 감염이 있는 사람에게 주로 생기고, 영양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흑색 담석은 염증이 없는 무균의 담즙에서 발생하며 간경변증이나 응혈성 황달 환자·심장 판막 수술 환자·위절제 수술 환자에게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